

지금 이시각

비영리 월간아카이브
발행 _ pighaedlab

TIME NOW

2023. 12
열여덟번째



이채연

이것은 파가 아닙니다

오종원

2023년의 정산 : 나와 피그헤드랩

김가영

세한도를 보며

김유주

둘이서 하는 여행

김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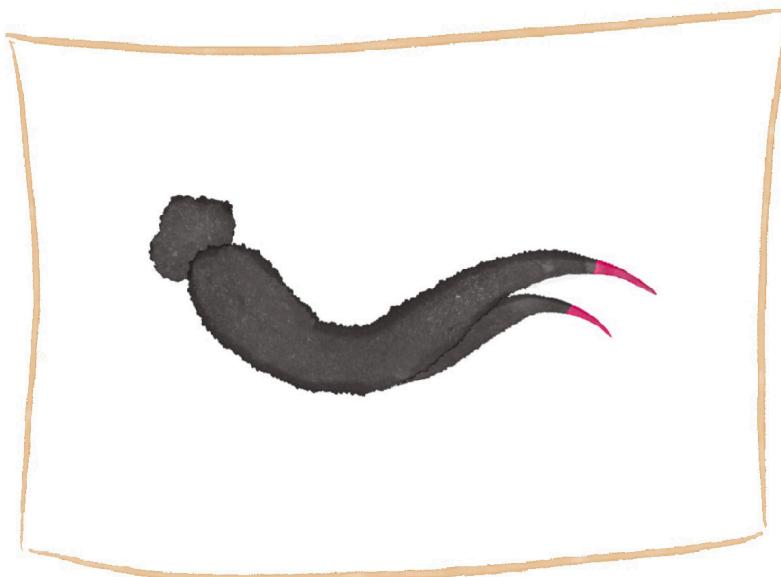
서교예술실험센터를 보내는 글

Pighead Lab



표지이미지 :

종로에 위치한 유명 닭도리탕 집.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맛집이고 체인점도 생겨서 이곳 저곳에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본점이 제일 맛있는 듯한 기분이다. 다닥다닥 붙은 테이블과 의자들, 세월이 느껴지는 식기들, 조금 불편한 화장실, 시끌벅적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화구에 양푼이 닭도리탕이 올라오면 그 순간 이곳이 맛집이 맞구나 싶은 것이다. 참고로 이곳은 빌지(계산서)에도 닭도리탕, 술, 안주, 사리 이렇게 4가지만 적혀 있어서 매우 심플함을 자랑한다. 날씨가 추워질 때에 이곳 닭도리탕에 떡과 면을 넣어 먹는 것이 나름 묘미이다.





이것은 파가 아니다 Ceci n'est pas une pa

이 채 연

창작가 /

관심 받고 싶어 하는 주부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9일까지 개인전 <이것은 파가 아니다>가 있었다. 이 전시는 자화상이 주요 테마이고, 내가 파를 그리는 이유를 설명하는 자리였다. 이제까지 있었던 전시에서 제일 많이 들은 질문은 “왜 파를 그려요?”였다. 지금까지 파를 그려왔고 미는 아이템으로 내세우면서, 파를 그리는 이유를 꽤 이야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모르는 분들이 많았다. 전시를 처음보신분이 모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내 전시에 여러 번 오신 분들(너무 고마우신 분들!)이 그랬다. 그래서 언젠가 한 번쯤은 파와 나의 연관 관계를 보여주는 전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리고 전시를 했고, 끝났다. 얼마나 전달이 되었을 라나?

파를 그리는 이유를 여러 번 이야기하다 보면, 같은 말을 반복하는 내 모습에 민망해진다. 듣는 사람도 얼마나 지겨울까 싶기도 하고 말이다. 나는 지겹게 말한 것 같았지만, 파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은 적다. 내가 인상깊게 콕콕 잘 말하는 재주가 없어서일까? 아무튼 작업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면 친절히 답해야 한다. 마음속의 부끄러움과 민망함이 말하기를 꺼리지만, 프로 정신으로 극복하고 말해야 한다. 이것이 애송이 작가의 미덕이자 숙명이다! 이렇게 말하다 보면 조금씩 나의 이야기가 전달되고 기억되겠지~ 하며. 그리고 보면 같은 말을 여러 번 아니 수십 번 이상을 해야 하는 유명인들이 참 대단하다.

이번 전시를 준비하며 <이것은 파가 아니다>라는 책을 만들었다. 책의 내용은 파를 그리는 이유와 내가 파가 된 이야기이다. 말은 흘어지지만, 말을 글로 새기면 단단히 고정시켜 보여 줄 수 있어서 말을 책으로 옮겼다. 책작업은 경험이 없는지라……. 느슨하고 추상적으로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전시가 잡히면서 같이 실행하게 되었다.

전시와 책의 제목인 ‘이것은 파가 아니다’는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 <이미지의 배반>의 “Ceci n'est pas une pipe(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문구를 오마주 했다. 약간의 설명을 적으려고 했다가 지웠다. 내가 써 놓고 보니 참 어설프다. 혹시 궁금하다면 검색을 추천 드립니다. 검색하라는 말은 좀 무책임한가 싶어서 내 스타일대로 요약하자면……. 그림에 있는 파이프가 진짜 파이프가 아니듯, 내 파 그림

도 그냥 파 그림이 아니란 말씀! 그래서 ‘이것은 파가 아니다’ 이다.

이제 본론으로
내 작업에서 이것이 파가 아닌 이유

Ceci n'est pas une pa*

이것은 파가 아니다.

이것은 나다.

나는 파다.

내가 파를 특별하게 보게 된 건 입시 준비할 때였다. 파가 수채화 정물로 나왔기 때문이다. 정물 중 파를 잘 그려서 자신감이 생기기도 했다. 대학에 들어가 자취할 때도 파는 내 곁에 있었다. 저렴할 뿐 아니라 약방의 감초처럼 쓰임이 좋았던 파를 자취생의 야매요리에 많이 넣어 먹었다. 그 후 가정을 꾸리고 살림을 맡은 나는 그런 상상을 하기도 한다. 프랑스의 아줌마는 바게트를 크라프트 종이봉투에 넣고 다닌다면 코리안 아줌마는 ‘파’가 빼죽 나온 검정 비닐 봉지를 들고 다니지 않을까?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나는 ‘파’가 되었다.

특별하거나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아니다. 살다 보니,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는 거다.

억지 같기도 하지만 이렇게 애정을 가진 물체가 있다는 것이 좋다. 사랑을 주고 관심을 두는 일이 많아야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것 같다. 다음전시에서는 내가 가장 애정 하는 것을 그린 작업을 보여주고 싶다. 🐾

지금 이시각 2023. 12





2023년의 정산 : 나와 피그헤드랩

오 종 원
문화예술인력 /
피그헤드랩 운영

1. 2023년 올해 피그헤드랩은 구체적으로는 6개의 전시를 진행하였고, 여기서 부가적으로 2개의 프로그램을 돌렸다. 프로그램의 경우 공개 워크샵과 비공개 워크샵이 있는데, 공개 워크샵의 경우 매해 진행하는 터닝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이었고 비공개 워크샵은 모교(미술대학)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었다.

2. 일단 개인적으로, 작년(22년)부터 환경의 변화가 점점 크게 다가왔고 또 쉽지 않았다. 생업으로 근무하는 회사의 경우 연초에는 다소 여유가 있다가 여름이 지나면서 가속도가 붙는 느낌으로 업무량이 많아진다. 두 가지 일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할 것이겠지만, 생업과 부업이 나뉘어 있다면 언젠가 생업을 더 집중해야 할 때가 있고, 작년부터 내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내 역할이 매우 많아짐에 따라 많은 에너지를 쓸어야 하다보니 피그헤드랩에 전시 자체를 많이 운영하지 못하였다.

이것에는 단순히 전시의 횟수만이 아니라, 나름 공간과 기획자라는 개념에 대한 고민도 포함 되어있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얼마나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맞다. 가령 과거 독립기획자로 지냈을 때에는, 거의 매일같이 작가들과 술자리를 가지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곤 하였다. 예술은 이러니 저러니 앞으로 대세는 무엇이 될 것이니, 지금 생각하면 쓸데없는 이야기도 많았지만 그런 시간들을 통해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함께' 해보려는 시도의 가능성들이 있었다.

그러나 피그헤드랩의 운영이 적은 기회비용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상황이 바뀌다 보니, 어느덧 작가와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공감대의 형성이기 보다 비즈니스 미팅처럼 변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다시한번, 내가 마주하는 이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이고 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곧 막연한 부담과 처음의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충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다시 대화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3. 올 해 전시의 시작은 황문익 작가의 <레드라이트>부터 이야기 할 수 있겠다. 애초 이 전시는 밑에 소개할 이혜진 작가의 전시와 함께 22년을 함께할 마지막 전시

였었고, 실제로 나는 본 전시에 맞춰 연말파티까지 계획하고 있었다. 그랬던 전시가 23년으로 미뤄진 것은 앞서 말한 이유 때문에 나도 고민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황문익 작가와 나는 알고 지낸 지는 꽤 되었고, 나는 그의 가능성과 가치를 나름 눈 여겨 보고는 있었다. 피그헤드랩에서 함께 전시를 하자는 이야기까지는 비교적 쉽게 나왔다. 문제는 작가와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였다. 작가는 본인이 지향하는 창작의 순수성을 바탕으로 그것이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서 인정을 받길 희망하는 상황이었고, 나 역시 그의 작업은 그에 따른 어떠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기는 하였다. 고로 그에 대한 내 나름의 과제는, 그가 취한 노킹의 방식이나 혹은 그의 경력에 비해 어떤 타개책이 충분히 있었느냐는 물음이었다. 이는 내가 그를 몇 년간 지켜보고 그의 전시를 몇 차례 방문하였기에 꽤나 오랜 시간동안 고민하던 지점이기도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레드라이트>란 전시는, 사실 내가 지향하는 방향과는 다른 쪽이기는 하였다. 전시 서문을 통해 밝히기는 하였지만 그는 창작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 ‘나’의 이야기로 돌아가 그가 바라보고 느껴지는 것에 대해 큼직하면서도 덤덤하게 이야기를 풀어내었다. 물론 결과물인 전시는 꽤 좋았다. 그가 그동안 쌓아왔던 기술들이 너무 자극적이지 않고 슴슴한 맛으로, 그러나 일정 규모 이상으로 관객을 마주하였다. 피그헤드랩이란 공간이 이렇게 작았구나 하는 아쉬움이 다 들더라. 내 나름대로 그에게 많은 질문들, 그리고 많은 답변들을 듣고자 하였지만 결국 ‘나에게 창작이란 자세는 이런 것입니다’라고 심플한 한 줄 짜리 답변을 들려주는 것 같아, 묘한 걱정과 아쉬움은 있었다. 다만 그럼에도 그 자체가 또 묘한 감동을 주는 전시이기도 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전시 직후, 황문익 작가에게 자전거라는 세계를 소개 시켜 주었고 근래에는 종종 같이 라이딩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전거 이야기와 함께 이런저런 사는 얘기들을 나누고는 한다. 무엇인가 꼭 목적을 두고 나누는 것이 아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들. 지금 생각하면 진작 자전거부터 먼저 입문 시키고 난 다음에 전시 얘기를 할 것을. 그런 생각이 농담처럼 한번씩 들고는 한다.

4. 이혜진 작가의 <그래도 피어나고>역시 원래 22년에 개최될 전시였다. 작가와의 전시 계약은 21년 맺었는데 당시에만 해도 1년 뒤는 다소 멀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지만, 무색하게도 또 금방 지나가버린다. 사실 나는 작가와 십년 전부터 알던 사이이고, 또 그가 그 시간동안 해온 과정들에 대해 어느정도는 짐작할 수 있었다.(물론 작가는 원치 않을 수도 있다) 특히 나는 작가의 작업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일종의 ‘아카데미즘’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였기에, 그것을 잠시라도 걸러낼 수 있는 원초적인 어떤 접근에 대해 얘기해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서두에 밝힌 어떤 고민들, 작가와 기획자의 관계, 그리고 기획자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혜진 작가에 대한 나의 대응이 미처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었다. 서로가 미술을 배울 적부터 알던 사이인 만큼 그의 작업에 깔려 있는 네러티브에 대해 이미 어느정도 알고 있었고, 또 그러한 만큼 작가와 작품의 취약점에 대해 내가 온전히 중립적이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가령 그가 A라는 작업에서 B라는 작업으로 연구를 한다 하였지만, 나에게는 이미 A1, A2, A3의 과정들을 인지하고 있기에 그가 내놓은 B 역시 A의 잔여물처럼 느껴지는 것일까. 작가 역시 그러한 과정에서 나름의 창작을 펼치는 게 썩 편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성향과 방향성의 차이 같은 것도 존재하겠지만, 적어도 내가 과연 온전히 객관적인 시선을 가질 수 있을지 확신이 들지 않았다.

이러한 지점은 작가에게 어느정도 털어놓은 것이다. 그런 와중에 작가는 또 나를 위로해주곤 하였다. 아무튼 몇 차례 고민의 시간들 끝에 전시는 무사히 개최되었다. 오프닝 당일 작가에게나 내게도 선생님이자 선배님들이 방문해 주셨다. 이런 저런 만감이 교체하였고, 그날 대화의 전반적인 것은 과거의 어떤 시점들에 대한 향수들로 기억한다. 그 느낌이 분명 아련하고 좋았던 것은 맞으나 한편으로는 온전히 분리된, 작가와 기획자의 관계가 성립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컸다.

5. 고은아, 김시연, 박혜민의 <미나리서리단>은 모교 후배들을 대상으로 워크샵 프로그램을 가진 다음 삼인전으로 제작한 것이다.

시작은 작년 겨울, 모교에서 졸업전시를 있다고 방문해주시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나서 였다. 간만에 받은 졸전 문자이기도 하고(졸업한지 꽤 되었으니 졸전에 대한 연락은 없던 편이었다), 마침 지금 근무하는 회사에서 멀지 않기에 한번 찾아가 봤다. 기대보다 다양하고 재밌는 작업들이 많아 깜짝 놀랐다. 그 중에는 이정도면 수준급이네 싶은 작업들도 있었고, 또 당장의 과실은 아니더라도 어떤 노력들이 보였던지라 졸지에 꽤 오랜 시간 해당 전시에 머무르게 되었다.

관심있는 몇 명에게 말을 걸어 보았고, 사실 말을 건 이들 중 일부는 창작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에 아쉽기도 했었다. 그래도 성실하게 대답을 해주는 이들도 있어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그리고 받은 도록을 바탕으로 일부 인원에게 연락을 돌렸고 이 중 상기한 3명이 참여하게 된 것이다.

추운 겨울부터 봄까지 진행된 워크샵은 크게 3가지 방향이었다. 일단 근래의 졸업 전시까지 교수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을 테고, 또 각자 최선의 퍼포먼스를 보인 것일 테니 당장 창작물이 이러네 저러네 하는 것은 다소 의미가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1) 시각예술을 바탕으로 하여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군 + 이력서를 쓰는 일종의 요령, 2) 갤러리와 미술관, 대안공간 등에 대한 구분 + 이러한 곳들에 지원하게 될 시 지원서를 쓰는 요령, 3) 자체적으로 전시의 시작부터 끝까지 직접 만들어 보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한번은 날을 잡아 종로일대 전시투어를 같이 돌기도 하였고. 놀랐던 것은 앞서 말한 과정들, 가령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 등에만 해도 이들이 어느정도 견해와 이해가 있다는 것이었다. 요즘 전공 교과 과정들이 더 좋아졌나 싶어 내심 부럽기도 하였다.

그렇게 해서 결과물로 나온 <미나리서리단>이라는 전시명은 재미있게도 미나리

전에 막걸리를 함께 하면서 나온 이름이다. 전시도 각자가 충동적이더라도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면 응원하고자 하였으며, 완성도의 아쉬움은 있어도 충분히 익살스럽고 재미있게 나왔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이들을 계속 예술계에서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들이 나와 함께한 워크샵의 시간들을 또 어떻게 기억할지 역시 알 수 없다. 다만 그들이 앞으로도 자신들이 배우고 관심을 가진 것에 재미를 느꼈으면 하는 바람일 뿐이다.

6. 피그헤드랩은 매년 <터닝포인트>라는 공모를 진행한다. 예술가들은 어떤 창작 활동의 실현이 필요하고, 공간 및 지원 기관 등은 그런 예술가들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아무리 전시장이라고 만들어 놨어도 콘텐츠가 없으면 무슨 소용인가. 지속적으로, 또 계속하여 새롭고 참신한 콘텐츠가 자리잡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인 것이다. 새로운 콘텐츠를 찾고 유지하는데 있어 공모는 필수 불가결한 장치이기도 하다.

피그헤드랩은 오종원 개인이 운영하는 만큼 기회비용의 품이 한정되어 있고, 더욱 이 주변의 모든 이에게 전시를 하자고 할 수도 없는 일이다. 오히려 아는 이들에게 전시를 권하는 것이 더 어렵기도 하고. 무엇보다 누군가를 알고, 그 사람과 작업에 대해 논하고, 전시를 권하고, 상대방이 조건을 제시하고, 타협하고 하는 과정들이 공모라는 시스템에서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압축되는 것이다.

터닝포인트가 어떤 취지로 기획되었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피그헤드랩 웹 페이지에 아카이브는 하였지만, 그것도 나름 무엇인가 쌓인 것인지 (매년 좋은 작가님들이 공모에 지원해주시기는 하였지만) 올해에는 정말 참신하고 완성도가 높으며, 속된 표현으로 “굳이 이런 사람들이 피그헤드랩에는 왜?”라는 생각을 가질 만한 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었다. 살짝 부담감이 있었다. 또 앞서 언급한 기획자로서 역할과 상황의 변화로 인해 이들과 ‘무엇인가를 함께 진행하는 것 / 만들 어내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 무엇인가 장치 같은 것이 필요하다 생각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제안한 것은 <대화의 날>이었다. 이는 궁여지책이기보다, 어차피 피그헤드랩이 계속해서 지향하는 것과 앞으로도 지향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들에서 나온 나름의 방향성이었다. 이번 참여작가들과 함께 하는 오리엔테이션 자리에서 나는 조심스럽게 올해 프로그램의 취지와 방향이 이렇게 진행될 것임을, 또 그것이 뭔가 구체적인 결과물로 보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밝힌 바 있다.

결론적으로 대화의 날은 생각보다 쉽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참여작가 중 한 분은 이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시긴 하였으나, 대화를 일종의 탁구로 비유하자면 의도적으로 강한 서브로 자리를 지속적으로 크리티ック하게 만들었다. 분명 의미는 있는 대화들이긴 하였으나, 피로감이 너무 높았다. 그렇게 몇 차례 반복되다 보니 대화의 날 자체를 진행하는 것이 여간 힘들 수가 없었고 결국 예상보다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할 수는 없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렇게 다소 아쉬울 수 있는 대화 프로그램을 마치고, 참여작가들이 피그헤드랩에서 각자 개인전 / 프로젝트의 형식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표출하는 것은 잘 나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피그헤드랩의 프로그램이 미친 어떤 영향 덕분이기 보다 오로지 작가들 자신의 역량으로 매꾸어 진 것이라 할 수 있어서, 사실 기획자로서는 아쉬움이 크기는 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커뮤니티에 대한 나름의 고민과 공부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7. 터닝포인트 프로그램과 참여 작가들의 개인 공간활용이 끝나고 나니, 다시금 피그헤드랩에 휴식기를 가지게 되었다. 처음에 말한 데로 내 생업이 가을 시즌에 제일 바빠지는 이유도 있었고, 또 터닝포인트를 진행하며 모종의 피로감들을 느낀 탓이기도 하다. 포괄적인 지점에서 지치는 것도 없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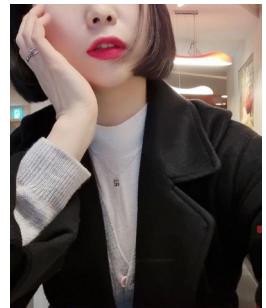
그래도 빼지 않는 것이 연말 파티이고, 핑계로 삼을 <피그헤드랩 3주년 기념전>을 준비해보았다. 준비라는 단어가 올바른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오픈콜의 형식으로 진행한 전시이다. 참여하는 여러분의 작품으로 즉석에서 만들어지는 전시. 대상도 제한하지 않았고 조건은 연말파티에 함께 하는 것 뿐이라는 심플한 룰을 걸어보았다.

12월 2일, 걱정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었고 또 걱정했던 것보다 전시 작품들이 채워졌으며, 걱정했던 것보다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올해 내가 품은 몇 가지 고민들, 또 피그헤드랩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깊고 심오한 무거운 시간이기 보다, “기획자님 알아서 하세요”라며 깔깔거리는 경쾌한 시간이었다. 그러다 문득 올 한해 내가 품으려는 관계, 대화를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었을까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것이다. 내가 피그헤드랩을 만들고자 하였던 것은 어쩌면 이것이었을 수도 있는데.

피그헤드랩은 애초 예술가들끼리 무엇인가 해보자는, 머리를 맞대고 재밌는 일을 만들어내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공간이다. 어떠한 방식이던 함께 시간을 보내며 부딪치고 깨지고 그러다 다시 붙이더라도 새로운 무엇인가가 창출되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게 내 나름의 방식이었다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향후 피그헤드랩은 작은 것들이라도 하나하나 채워지는, 그런 시도들의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게 일단 내년의 목표인 듯 하다. 



피그헤드랩 개관 3주년 겸 연말파티



세한도를 보며

김 가 영
책과 그림을 읽는 사람

움츠러든 듯 낮게 웅크린 집 한 채와 그 주변의 나무 몇 그루가 세한도의 전부다. 세한歲寒, 즉 차디찬 세월을 그린 것이니 그럴 만도 하다. 추사(김정희_편집자 주)는 제주도에 유배되어 위리안치에 처해졌다. 가혹한 시절이었을 것이다. 곤 떨어진 연과 다를 바 없는 추사에게 제자 이상적은 중국의 귀중한 서책들을 제주까지 보내며 변함없는 마음을 전한다. 아, 이때 추사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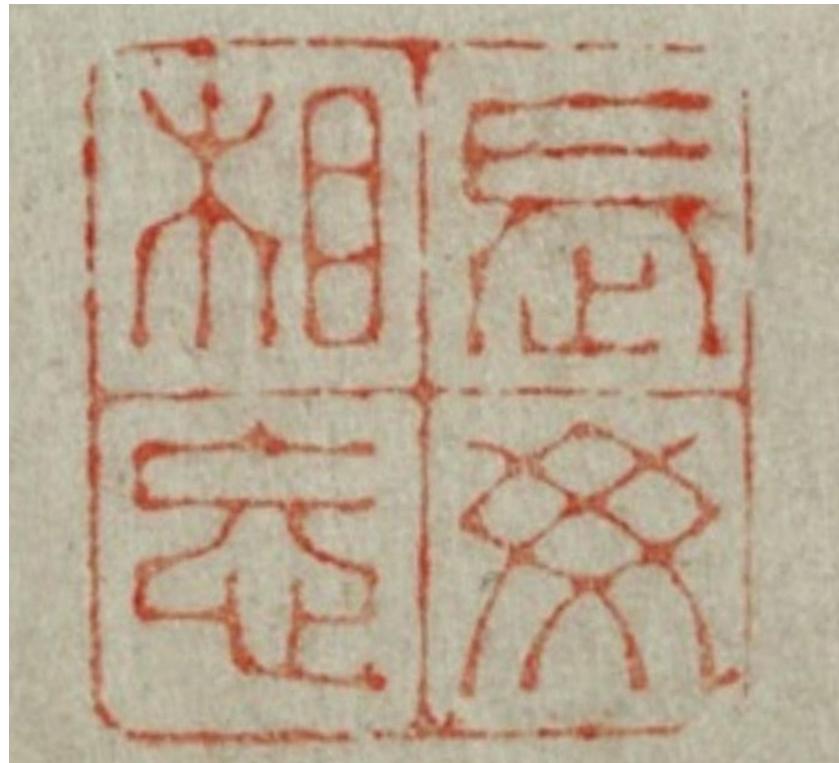
'세한연후지송백지후조야 寒然後知松柏之後凋也', 즉 날씨가 추워진 후에야 소나무와 측백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안다는 뜻으로 추사에게 이상적은 바로 세한에도 늘 푸르른 송백과 같은 사람이었다. 엄혹한 시절에도 그 의리와 정을 잊지 않는 사람. 그리하여 비로소 그 기상의 귀함이 드러나는 사람인 것이다. 그 뜻을 알고 보니 저 초라한 집과 노송이 의지하는 측백나무의 의젓함에 마음이 절로 애틋해진다. 추사는 세한도를 마무리하며 '장무상망長母相忘' 인장을 찍는다. 오래도록 서로 잊지 말자는 뜻이다. 이 깊은 마음을 어찌 다 헤아릴까. 읽는 내 마음이 다 시리다.

세한도, 추사 김정희 (사진 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온라인 아카이브)



비록 세한을 그리는 감정은 목 밑까지 차올라 찰랑거렸을지 모르나 그 필선은 더 없이 간결하고 소슬하다. 이 절제된 담담함 속에 슬픔과 고마움, 의리와 선비 정신의 고매함이 모두 담겨 있다. 이것이 세한도의 격조이며 문인화의 경지를 보여주는 지점이자 이백 년이 지난 지금도 커다란 울림을 주는 이유다.

이 물기 없는 갈필의 까슬까슬한 그림 한 폭에 담담히 담긴 깊디깊은 마음. 그 마음에 의지해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참던 시간들. 세한 속에 오직 나 혼자였던 시절, 세한도는 그저 한 점의 그림이 아닌 내 의지처였다. 지금도 각자의 세한을 통과하고 있을 이들에게 다시금 세한도의 정신과 위로를 전하고 싶다. 그 마음을 서로 오래도록 잊지 않기를 바라며. 🐾



세한도에 찍혀있는 장무상망
(※ 추사 김정희와 제자가 서로 오랫동안 잊지 말자는 의미_편집자 주)
※ 상단의 이미지는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둘이서 하는 여행

김 유 주
쉬어가는 사람

첫 글에서 밝힌 대로 나는 친구와 둘이서 여행을 했다. 사실 출발할 때만 해도 ‘돌아올 때도 둘이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다. 스포를 좀 하자면, 우리는 함께 돌아왔다.

모든 여행자에겐 나름의 고충이 있겠지만, 둘이 여행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가끔씩 혼자 여행 중인 사람들을 만나면 ‘저게 힘들까 이게 힘들까’ 혼자 추측해보기도 했다.

둘이 하는 여행의 단점은 24시간 매일을 붙어 있으면서 모든 결정을 함께 해야 하고, 마음대로 게을러질 수 없다는 것이다. 나의 역할을 게을리 하면 동반자의 하루도 영망이 되기 때문이다. 대신 고난, 역경, 분노, 감동, 쪽팔림 등의 모든 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그리고 식당에서 1인분만 주문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거나 역할을 나눠 여행의 고단함을 줄일 수 있다는 일상적인 장점도 있다.

그 외에도 장점과 단점이 수도 없이 많지만 가장 큰 어려움을 하나 고르라면 둘이 하는 여행에는 언제나 갈등이 함께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갈등의 시작은 말레이시아였다. 말라카. 이미 싱가포르에서 까까머리를 타고 출출 흐르는 땀을 경험했지만, 말라카 역시 더위가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갈등이 더위 때문은 아니었다.

우리는 떠나기 전 야심차게 유튜브를 계획 했었다. 나는 다시 또 없을 여행을 기록하고 싶었고, 조회수와 상관 없이 우리의 여정을 영상으로 남기면 좋겠다고 생각 했다. 분명 우리는 함께 유튜브를 결정했는데, ‘함께’라는 것이 아주 간단하고 쉬워 보이는 결정에서조차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 때는 몰랐다. 결정은 함께 했지만 생각은 같지 않았던 것이다.

친구는 말라카에 도착하자마자 길거리를 찍으며 앞장 서 걸었다. 무거운 배낭과 더위로 숙소까지 걸어가는 길이 이미 천근만근인데.. 영상을 찍는다? 나는 엄두도 나지 않았다. 그럼 그냥 닥치고 있으면 될 것을.. 영상을 찍는다고 거리 이곳저곳 카메라로 기웃거리는 모습이 못마땅해 짜증이 났다.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사정을 모르는 친구는 초보 유튜버가 되어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아까 버스에서 말라카가 어떻게 했죠?”

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건성건성 대답했다.

“아, 그냥 뭐, 풍경이 달라졌다고.”

힘드니까 말시키지 말라는 것이었다.

천사 같은 내 친구가 화를 끌꺽 삼키는 것이 어리석은 내 눈에도 보였다. 그리고 나는 당연히 외면했다. 과거의 못난 나를 위해 변명을 좀 해본다면, 출국 전부터 안 좋았던 몸이 다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다. 힘들고 예민할 때 갈등의 불씨는 커지는 법이다.

숙소에 짐을 풀고 말라카의 유명한 존커 야시장에 갔다. 신이 나서 망고주스를 찾아 나섰다.

“와.. 미쳤다. 우리 여기서 예산 좀 오버해도 돼? 나 밥 안 먹고 망고주스만 사 먹을 게.”

아, 망고주스. 먹자마자 행복이라는 끝없는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는 기분이었다. 여담이지만 18개국을 떠돌면서 이 망고주스를 넘어서는 ‘마실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세상 행복한 인간이 되고 나니 친구가 찍고 있는 카메라 앵글이 눈에 들어왔다.

“그렇게 막고 좀 높여서 찍어.”

“거기 막고 이런 걸 찍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망고주스를 빨면서 훈수를 뒀다. 아마 천사도 이쯤 되면 폭발하지 않을까.

“야. 그럼 니가 찍어.”

“그래, 나도 아까부터 내가 찍고 싶었어.”

나는 그렇게 카메라를 받아들었다. 잘 찍고 말겠다는 자존심으로.

사람들이 카메라를 보면 기분 나쁘지 않을까 신경이 쓰였다. 자연스레 사람이 없는 곳만 향하다보니 찍을 거리가 없었다. 이곳은 말라카에서도 사람이 가장 봄비는 존커 야시장이니까. 나는 겨우 5분 정도 찍고 카메라를 집어넣었다.

“너 안 찍어?”

“나 다 찍었는데.”

“이리 내.”

결국 카메라는 다시 친구의 손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나는 다신 카메라를 달라고 하지 않았다.

나는 이 날 유튜브가 우리의 동상이몽이었다는 것과 나와 맞지 않는 일이라는 것 이 두 가지를 깨달았다. 원래도 사람 많은 것을 싫어하고 폐 끼치는 걸 지나치게 싫어하는 나는 사람들을 향해 카메라를 들 용기도 없고, 추억을 남기는 것보다 지금 현재를 즐기기 바쁜 사람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말라카를 떠나 쿠알라룸푸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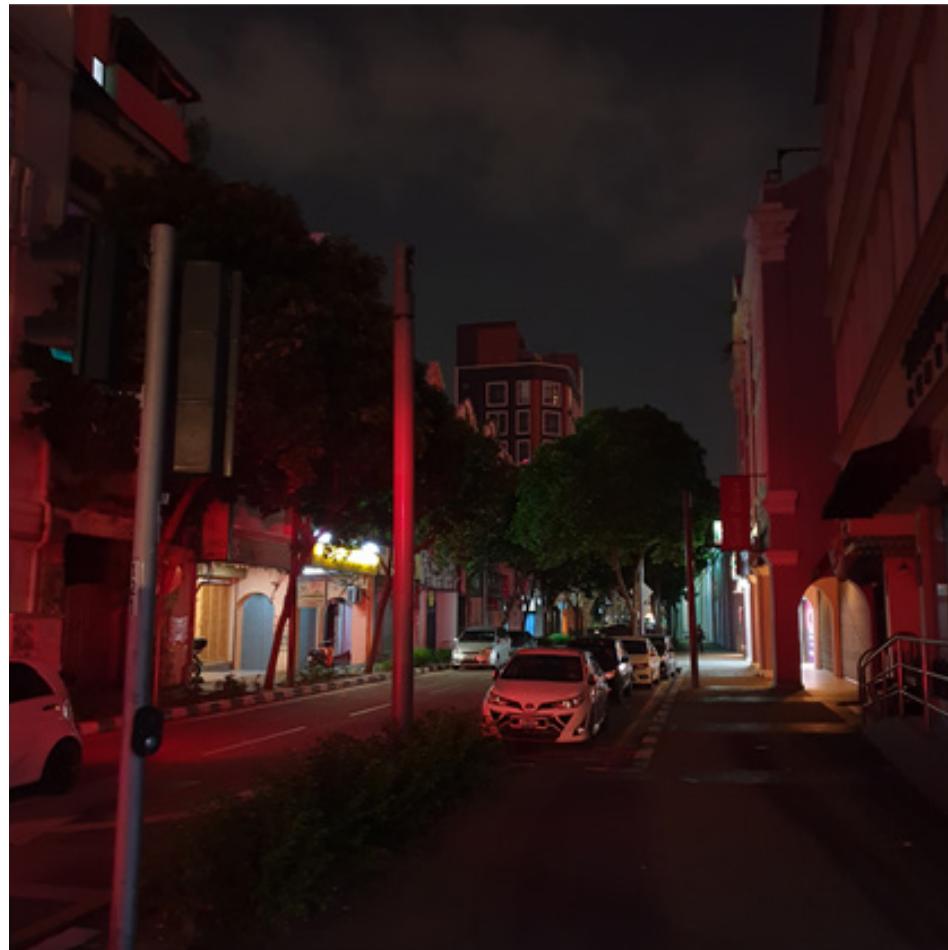
말라카의 존커 야시장. 다른 건 몰라도 망고주스는 꼭 먹어야한다.

에서 아주 힙한 분위기의 바에 갔다. 거금을 들여 맥주를 시키고 앉아있으니 낭만이 차올랐다.

‘그래, 지금이야.’

“나 유튜브 안 할래.”

친구는 유튜브에 새로운 경험과 자아실현 같은 의미를 두고 있었다. 혼자라면 어려운 일을 둘이 함께 한다는 것이 친구의 결심에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같이 하자고 할 때는 언제고 멋대로 안 하겠다는 나의 통보가 좋게 들렸을 리 없다. 그동안 편집도 촬영도 모두 혼자 하던 친구는 영상을 찍을 때조차 비협조적인 나에게 서운한 마음이 쌓여 있었다. 그 날 우리는 맥주를 홀짝이며 끝나지 않는 대화를 나누다가 숙소로 돌아갔다.



쿠알라룸푸르의 숙소 가는 길. 싸움이 오래가지 않는 이유는 서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문제는 돌아오는 날까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툼의 주요소재로 남았다. “이 좋은 곳에 와서 온전히 감상에 젖어 있고 싶은데 왜 멘트를 하라는 거야.”

“멘트 하나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내 말에 대답만 해주면 되는데 그것도 못 해?”

언제든 터질 수 있는 폭탄 같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인지 그 외에는 다투는 일이 거의 없었다. 솔직히 이 문제를 빼면 우리는 너무나 좋은 여행 메이트였다. 서로가 무엇을 잘 하는지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잘 알기에 각자 맡은 일을 충실히 해내려 노력했고, 의지하는 만큼 서로를 잘 챙겼다.

후에 귀국을 코앞에 두고 평소 선망하던 유튜버를 만나 대화를 나눈 일이 있었다. 그들은 한일 부부인데, 우리가 매일 다투던 말들을 그들도 똑같이 하는 걸 보고 적지 않은 위안이 되었다. 오랜 결혼 생활과 수년간의 유튜브 운영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니, 우리가 특별히 못난 건 아닌 것 같다.

유튜브를 하지 않아도 둘이 하는 여행에서 다툼은 피할 수 없는 것 같다. 얼마 전에 이영애가 젊은 시절 스타일리스트 언니와 둘이 2주 여행을 하면서 ‘한국 가서 보지말자’고 싸웠다는 인터뷰 영상을 봤다. ‘그래, 저렇게 예쁜 이영애도 저렇게

유치하게 싸우는데..’

다시 며칠이 지나 잘란알로 야시장에 갔다. 외국인이 가득한 곳에서도 현지인 감성(?)을 찾는 우리 나름의 기준이 있다.

“저 집 어때?”

“아, 너무 외국인이 많은 것 같지 않아?”

“그렇지? 현지인 아저씨들이 좀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좋겠지?”

“당연하지.”

“저 집이다. 우리 외국인인데 별로 관심 없으신 것 같지?”

“오 잘 찾았는데?”

우린 이런 데엔 죽이 참 잘 맞는다. 마침 머리가 하얗게 센 동네 어르신 두 분이 간단한 안주에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저기 옆자리?”

“나이스”

신이 나서 먹고 싶은 안주들과 맥주를 시켰다. 이 순간을 위해 낮에 카야토스트 두 개 먹을 거 한 개 먹으면서 참았다. 정말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냐면.. 무려 야시장을 오픈한 하기 위해 주변을 배회했다는 말이다.

“아~~ 진짜 너무 행복하다 그치?”

“모닝글로리 왜 이렇게 맛있나?”

“오늘 맥주 몇 병?”

텐션이 올라서 키득거리고 있는데 순식간에 비가 쏟아졌다. 정말 쏟아졌다. 사장 님까지 나와서 야외 테이블 손님들을 안으로 보내고 있었다. 우리 역시 야외 테이블이긴 하지만 가게 입구 바로 앞이라 괜찮아 보였다.

“바깥 쪽 안 앓길 잘했다 그치?”

“우리 테이블도 반은 젖었는데? 음식 잘 사수 해.”

테이블의 절반이 비에 젖었다.

“아 이것도 낭만이네.”

“뭐라고???? 안 들려”

바로 옆인데도 소리가 안 들리기 시작했다. 바람을 동반한 폭우가 시작됐다. 마침 야시장 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구매한 우산이 생각났다.

“오늘 낭만 끝내주네~!”

“이건 진짜 못 잊을 것 같다”

우산에 부딪히는 빗소리와 폭우 속에서 늦게까지 맥주잔을 부딪쳤다. 끊임없는 갈등에도 함께하는 여행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함께이기에 가능한 이런 순간들 때문이다. 



이 날 숙소로 가는 길엔 우산이 필요 없을 만큼 비에 쫄딱 젖었다.



서교예술실험센터를 보내는 글

김희진
노동자

장래를 위한 꽃다발과 의식, 선언과 안녕

세상이 멈추고 끝을 맺은 직후에 그리고 일정 이상의 임계를 지난 후에 우리는 어떤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거나 기대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그 역할 즉 본인의 수명을 다했을 때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규정하거나 판단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나는 그렇게 지나간 시공을 위해서 어떤 추모를 해낼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죽음 또는 이별이란 갑작스럽게 찾아온다. 나는 그것을 만난 후 두 시간 정도를 흘려보내고 그것의 먼 여행을 기꺼이 도왔다. 슬프거나 기쁜 마음 보다는 그것이 잘 떠날 수 있도록 짐을 빠지지 않고 챙기는 일에 몰두했다. 그러니까 감정보다는 잘 하고 싶다는 욕구에 충실했다. 나는 여행, 즉 그가 떠나는 일의 목적이나 성격 행선지나 경로들을 물었다.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떠나는 기분이 어떤지 아쉬운 점은 없는지 그에게 물었다. 그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꼭 떠나야만 하느냐고 그에게 물었다 그제서야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렇게 그는 아무런 말도 없이 떠났다

떠나보낸 그를 다시 만날 수 없대도 나는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 기어코 떠나버린 그것의 육신을 나는 떠올리고 재생하고 다시 사랑한다. 마음은 그가 떠난 후 유일한 단서가 되었고, 그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더이상은 감출 수 없는 기록이 되었다. 떠나간 그를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 혹은 더 나은 누군가를 찾고 그것에 몰두할 수 있을까? 혹여 그렇지 못한대도 언젠가 그러한 날을 맞을 수 있도록 결국은 그를 떠나보내야 한다. 그 후 남아 서있는 우리는 새로운 죽음과 인사를 다시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으로 지나쳐온 그것과 재회한다.

그리고.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독자 의견을 듣습니다!

문화예술인, 자신만의 세계를 소개하고 싶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알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말, 자신의 작업물, 소개하고 싶은 것들. 편하게 남겨주시면 아카이브 하도록하겠습니다.

pigheadlab@gmail.com / A4, 3페이지 정도 혹은 그 이상 / 프로필 사진과 필명, 자기소개

<지금 이시각> 및 관련한 모든 콘텐츠 저작권은 피그헤드랩(pigheadlab)과
편집자, 개별 콘텐츠 당 창작자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시각>내 콘텐츠 사
용, 문의 등은 우선하여 피그헤드랩에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시각 TIME NOW_2023. 12, 열여덟번째

발행인 : 오종원 발행처 : 피그헤드랩 pigheadlab(www.pighaedlab.com) 웹사이트 내 PDF로 관람 가능

참여 필진 : 김가영, 김희진, 김유주, 오종원, 이채연

문의 : 01082339033